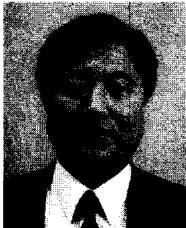


전자산업의 향후 20년

특집 편집기



박종국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금년은 전자공학회 창립 51주년인 되는 해로써,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반세기의 시작을 맞이하여 향후 20년후의 국내 전자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전자산업의 발전상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렇지만 각 분야를 두루두루 깊이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로 판단되는 정보통신, 컴퓨터, 메카트로닉스, 반도체, 신호처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 특집에 글을 써주신 필자분들은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지만, 모든 필자께서 20년후의 발전상에 대하여 많은 난색을 표하였다. 그렇지만 고맙게도 바쁘신 중에도 글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정된 지면때문에 필자께서 각분야를 폭넓게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글을 써주셨다고 생각된다. 바쁘신 중에도 글을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글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외국 분으로 전자공학회지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글을 보내주신 동경대 Harashima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